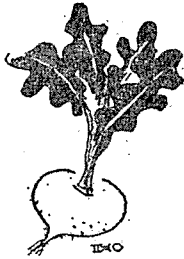


폐수를 내보내는 기업가 양심



朴 鍾 世

폐수에 대한 공포는 전세계가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즈음 와서 부적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일본의 공해업소가 우리나라로 자리를 옮겨 가동함으로써 말썽을 빚기도 했지만 요지음처럼 절실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일본의 공장유치작전이라는 가, 실제 강물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낄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지음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깜짝 놀랄뿐 아니라 공포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가 눈만뜨면 마시게 되는 물(水)의 원천인 강물이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액(産業廢液)과 가정에서 파피되는 우리들 낙원 ●

● 1000자 상식

성 고 통 과

性 苦 疳

불 감 증

不 感 症

외래환자실에 찾아 오는 환자들 가운데 자기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환자중 심중 팔구는 성기이상, 냉감증, 불감증들이다. 냉감증은 성욕이 결핍하여 성교를 하

나오는 경성세제(硬性洗劑)등으로 인해, 오염되어서 크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오염은 수원(水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양오염(土壤汚染)까지도 초래해서 이것이 축적될 때의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한것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몇년전 일본에서 있었던 공장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영향은 마침내 그 하루에 사는 동리사람을 모두 몸이 피고 손발이 비틀어지는 병에 걸리게 했고, 일본 전체가 떠들석 했던

고 싶지 않은 것이고, 불감증은 성욕은 있으나 성교를 해도 성감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의사는 먼저 이런 환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첫째로 성교를 싫어 하는 원인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물론 성교기술의 무지에서 오는 것도 있으나 만약 쌍방에 애정이 있는데 성교를 싫어하는 원인은 ① 성고통 ② 여성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원인 ③ 한번도 만족한 일이 없는 것 등임을 알 수 있다.

성고통은 처녀막강인(強靱)에서 오는 수가 많은데 남편이 손가락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도 있다. 효과가 없으면 의사는 처녀막 절개 수술을 하여 성교시(性交時)의 통증을 없애준다.

결혼 첫날밤의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 성고통에 접을 먹고 있는 부인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고 윤활유를 질입구에 발

라 주도록 한다. 자궁에 염증이 있을 때나 골반내에 유착(癒着)이 있는 부인은 음경을 넣을 경우 질안쪽 깊은 곳에 아픔을 느낀다. 이 아픔은 24시간이나 계속되는 수가 있는데 이의 치료는 보존적 또는 수술적으로 염증을 제거하거나 유착을 없애 주도록 한다.

관자나 얇은 벽으로 부부칠실이 막혀 있거나 한방에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부부생활을 하는 형편에서는 마누라의 성적 흥분이나 성교시의 감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부부만의 격리된 칠실이 불감증 치료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애무와 성교체위, 올라감조정에 변화가 없고, 남자들의 일방통행이나 무성의가 있으면 여자들의 불감증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부부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한몸이 될 때 불감증은 크게 줄어 들 것이다.

것을 기억한다. 그 원인은 공장폐수에서 나온 수은(水銀)의 오염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정말 무섭다는 것을 남겼고, 기업가들에게 경종을 울려줬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한강을, 낙동강을, 금강을,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몇년전까지만도 은어가 펴덕이던 강에 물고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강(江)의 상류에서나 조금씩 나타나는 낭만어린 물고기들.

물고기마저 살수없이 오염된 상수

도가 설치된 수원(水源)에는 ppm의 수치가 점점 높아가고, 한강의 경우 75년도에는 0.5ppm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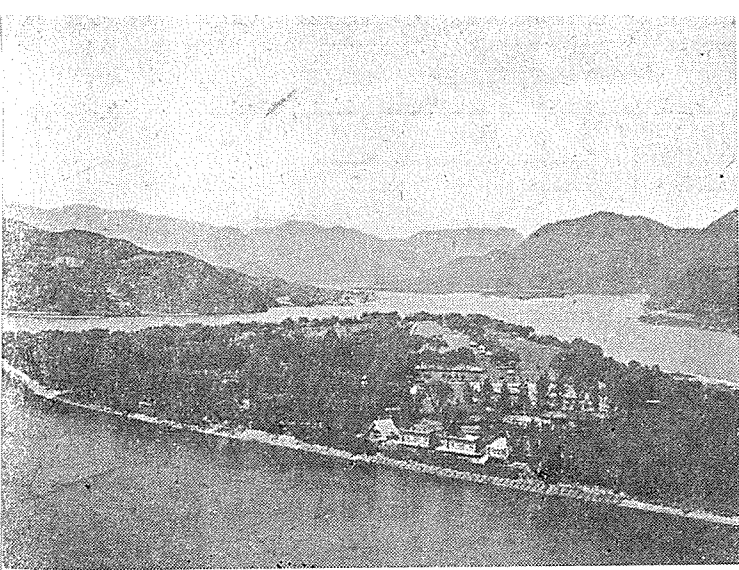
상수도원(上水道源)으로 쓸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해진다.

누군가 한탄을 했다.

한모금 물마저 얻을 수 없다면, 제 아무리江물이 흘러도 이미 그것은江물이 아니다.

「죽음의江」이나 다름없다고...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흐르고 있는 한강을 비롯한 모든강이 「죽음의江」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기막히게 수련한 한강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
단다. 이제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옛 애기
가 될 것인가 (사진은 한강종류의 날이섬
풍경)

각종 공장폐수에 의해 하류는 국제 기준치 이하로 오염되었고, 수은(水銀), 카드뮴등 중금속 위험속에 허덕이면서, 또 경성세제(硬性洗濟)에 의한 오염 까지도 질머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수도 종말처리장(下水道終末處理場)의 건설 하나만도 막대한 예산관계로 제대로 설치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폐수를 내보내는 기업가의 양심에만 모든 것을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폐수는 흘러서 그 기업가의 입, 그 가족의 입을 통해서도, 온몸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전국민의 건강에 적신호이다.

오직 폐수를 내보내는 기업가의 양심에 호소할 따름이다.

<필자=東洋放送 放送委員>

